

《속제해지》의 문학사적가치

오 희 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금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6권 160~161페이지)

우리 민족은 오랜 력사적기간 훌륭한 문학예술유산을 수많은 남겨놓았다.

우리 민족이 이루어놓은 문학유산가운데는 《속제해지》도 있다.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속제해지》는 17세기로부터 조선봉건왕조말기인 19세기 전반기까지 이르는 약 300년간에 창작된 문예산문들을 모아 묶은 책이다.

《속제해지》에는 류몽인, 남구만, 박세당, 김창협, 리덕수, 서명웅, 박지원, 정재륜, 리익, 김려, 김선신, 오현상 등 12명이 창작한 작품 35편이 수록되어있다.

《속제해지》란 《제해》에 잇달려서 기록한 글이라는 의미이다. 《제해》는 해학적인 이야기 또는 괴이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따라서 《속제해지》는 해학적인 이야기나 괴이한 이야기를 묶은 책에 련달아 쓴 글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려의 《총서제후》에는 자기가 젊었을 때에 김조순과 함께 《우초신지》를 재미나게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초》란 민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해》와 《우초》는 내용적으로 같은것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속제해지》라는 이름은 《우초신지》에 이어 나온 책이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속제해지》의 편찬년대와 편찬자는 자세히 전해지는것이 없다.

《속제해지》에 청산 김선신이 지은 《허각소전》이 있는데 작품에 대한 저자의 평에 붙인 후기에서는 그것을 쓴 날자를 《기유년 가을 7월 작은 그믐》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유년》은 1849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대체적으로 1849년경에 편찬된것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편찬자의 이름은 밝혀져있지 않지만 《허각소전》의 후기기록으로 보아 편찬자는 19세기 전반기 사람이며 청산 김선신과 가까이 지낸 사람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김려의 《총서제후》에 의하면 청산 김선신은 김려와 가까운 사람으로서 당시 글을 잘 짓는것으로 소문났으나 높은 벼슬은 하지 못하였고 《좌로악부》, 《청산소집》 등을 남기였다. 편찬자가 김선신과 교제가 깊었다면 김려와 마찬가지로 량반가문출신이지만 벼슬길에 나서지 않고 글짓기와 책읽기를 락으로 삼고 지내던 사람이거나 글재주를 가지고있었지만 출신, 신분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벼슬길이 막힌 사람이였다고 생각된다.

《속제해지》에 수록된 작품은 17세기이후 이름난 문인들이 창작한 글가운데서 패설류의 작품들을 선별한것이다. 선별의 기준은 편찬자의 견해를 따른것으로서 괴이한 이야기나 해학적인 이야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이한 이야기란 봉건사회말기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서도 불우한 한생을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서는 리해하기 어려운 사건,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해학적인 이야기는 이야기의 중심에 놓이는 인간과 생활이 당대 현실에서는

풍자와 조소의 대상으로 되는것들이다.

《속제해지》에서 피이한 이야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것은 특출한 재주를 가진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당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천시당하는 이야기이다.

실례로 류몽인의 《류희경전》은 높은 시적재능을 가지고있었으나 신분이 천한것으로 하여 한평생 벼슬아치들의 집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치르는 일이나 돌봐준 류희경에 대한 이야기이며 리덕수의 《리주서전》은 높은 글재주로 《화수정상량문》을 지은 리수봉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리익의 《홍유손전》, 《리대순소전》, 김려의 《리안민전》, 《고수재전》 등은 주인공이 아전, 서자, 천인 등으로서 남다른 재주를 지니고서도 당대 사회에서 버림을 받거나 의술과 기타 잡다한 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밖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안탄대가 선조왕의 외증조로 되어 웅당 부귀를 누릴수 있는 지위에 올랐으나 가난할 때처럼 겸손하고 소박하게 산 이야기, 역관 홍언순의 의협심에 대한 이야기, 김효원이 삼척부사로 되어 미신을 멀리하면서 성황당을 없애버린 이야기 등 일상생활에서 보기 힘든 이야기들이 피이한 이야기에 올라있다.

《속제해지》에는 이와 함께 당대의 현실에서 벌어진 부패한 량반사대부들의 비행을 폭로한 해학적인 이야기들이 수록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박지원의 《범의 구중》과 류몽인의 《광대이야기》이다.

《범의 구중》은 박지원이 진보적인 립장에서 부패한 량반들을 풍자, 조소한 작품이며 《광대이야기》는 귀돌이라는 배우가 궁중에서 공연하면서 통치배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폭로한 작품이다.

《속제해지》에는 이밖에도 힘장사인 교생 하대해에 대한 이야기인 리익의 《하대해전》과 결인인 남궁아무개의 남다른 생활관념을 찬양한 오현상의 《남궁생전》 등이 수록되어있다.

《속제해지》는 작품을 사상주제적내용에 따라 선별한것이 아니라 형태를 위주로 모아 묶었다. 《속제해지》는 패설들가운데서 일부를 선택하여놓은 작품집이다.

중세말기까지도 사람들은 소설과 패설을 구분하지 않았다. 중세사람들은 소설과 패설을 대체로 같은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정약용이 소설작품을 《패관잡서》라고 하고 김려는 자기의 소설을 《패사》라고 한것이다.

《속제해지》의 편찬자도 소설과 패설에 대한 옳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자기식의 견해에 따라 작품을 모아 묶었다.

《속제해지》에 수록된 작품들을 형태적으로 보면 대체로 소설과 패설이다.

실례로 박지원의 《범의 구중》이나 《량반전》은 중세소설문학의 훌륭한 본보기라고 말할수 있는 작품이며 류몽인의 《삼척성황신기》나 《호광라창설》, 리익의 《동한일기》, 박지원의 《발승암기》 등은 수필형식의 패설이고 리덕수의 《옛 거울이야기》(고경설), 오현상의 《양웅전》에 씬(서양웅전)은 잡기류의 패설이다.

패설을 수필과 잡기로 나누어보는것은 작가와 글쓰는 대상과의 관계, 글을 쓰게 되는 동기 등을 고려한것이다.

작가가 현실생활에서 받은 체험이나 느낌을 정론성과 서정성이 강한 산문형식으로 서술하였다면 수필형식의 패설로 보고 세간잡사를 보고 들은대로 옮겨놓은것은 잡기형식

의 패설로 보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패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형태들이다.

《속제해지》는 결국 17세기이후에 창작된 소설과 여러 류형의 패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속제해지》는 일정한 문학사적가치를 가진다.

《속제해지》의 문학사적가치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17세기이후 문예산문의 창작정형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

17세기이후 우리 나라의 사회생활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진보적인 실학사상이 발생하였고 복잡다단한 정치, 군사적사변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봉건통치배들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사회적인 안목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산문 특히 문예산문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속제해지》에 수록된 작품들은 거의 모두가 인간과 그 생활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한것들이다. 이 책에 실린 산문들이 다른 패설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책에 실린 작품들은 인간생활을 일정한 줄거리속에서 펼쳐보이면서 미약하게나마 형상과 묘사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이전시기의 문예산문들과 구별되는 측면의 하나이다. 《속제해지》는 17세기이후 문예산문의 이러한 창작과정을 력사적으로 소개하였다.

《속제해지》의 문학사적가치는 다음으로 그것이 중세소설문학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소설의 발생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런데 중세소설문학은 15세기에 들어와 급속히 발전하였고 17세기이후 더욱 활발히 창작되었다.

《속제해지》에 수록된 작품들의 대부분은 소설이다. 여기에 수필, 잡기형식의 패설들이 일부 첨부되었다.

책에 실린 이러한 작품들은 중세 우리 나라 문학유산가운데서 패설과 소설의 형태적특성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중세기에 창작된 소설작품에서의 줄거리조직과 형상 및 묘사수법의 발전과정을 알수 있게 한다.

《속제해지》의 문학사적가치는 다음으로 그것이 실학과문학의 발전면모를 일정하게 보여주는데 있다.

책에는 많은 경우 당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있던 문인들의 작품들과 실학과문인들의 작품을 실었다. 그리고 실학과문인들의 경우에도 중기실학파의 대표적인물이었던 리익, 박세당과 말기실학파였던 서명응, 박지원의 작품들을 실고있다.

그런데 매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과 예술적형상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있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문인이며 다같이 실학과문인들인데도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는 그들의 세계관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

남구만의 《강세작전》과 박세당의 《강세작전》, 리익의 《하대해전》과 서명응의 《오익창전》이 주제사상적내용에서와 예술적형상에서 구별된다.

이것은 문인들의 사상의식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며 중기실학과문인들과 말기실학과문인들의 세계관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말할수 있다.

서명응과 박지원은 말기실학과문인들가운데서도 《북학파》로 알려진 사람들이다. 그들의 세계관은 중세말기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있었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속제해지》는 17세기이후 우리 나라 문예산문의 창작정형, 발전과정을 뚜렷이 보여준다.

《속제해지》에 실린 작품들에는 필자들의 세계관적 및 시대적제한성이 반영되어있다.

일부 작품들에서는 반동적인 《기자동래설》을 정설로 이해하고있으며 당시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을 풍자하고 조소는 하면서도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는 사회적근원에 대하여서는 전혀 밝히지 못하였고 투쟁을 통하여 극복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여 모면하는 현실도피사상을 강하게 반영하고있다.

서명응의 《오익창전》은 임진조국전쟁시기 리순신장군을 도와 왜적을 격멸한 주인공을 내세우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국적행동을 봉건군주에 대한 《충정》과 상관에 대한 《의리》로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유교적인 충군사상과 명분론을 설교한것이다.

《속제해지》는 이러한 부족점과 제한성이 있으나 중세 우리 나라 문예산문들을 수록한 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민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 많이 발굴정리하고 번역소개하여 우리 인민의 향유물로 만들며 사람들속에서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